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 기도문을 통해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맞는 기도문들을 준비했으니,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시간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 감사와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예레미야 애가 3:25)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경험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에서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격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번잡함과 걱정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으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만나게 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 용서와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한 죄와 허물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진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고, 때로는 교만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으며,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일관했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 교회와 성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경건한 가장과 아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짐을 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4 - 나라와 민족

"내가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공무원들 모두가 청렴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회복 중인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들이 수립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언젠가는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 사역과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음 세대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로 준비한 기도문들이 2025년 7월 넷째주 주일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기도문은 서로 다른 상황과 필요에 맞춰 준비되었으니, 예배의 흐름과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예배 자료와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루터교회 예배 자료〕(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